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롬 1:16~17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로마서 전체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고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단어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6번 언급하며 1절을 보면 자신은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9절을 보면 그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은 빛진 자가 되었고 이 복음 때문에 나는 그렇게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복음에 빛쟁이다! 복음에 빛진 자다! 그런 생각을 그는 늘 끊임없이 했습니다. 16절 오늘 읽어주신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땅의 능력이 아니요 하늘의 능력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한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죽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삶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요 그의 죽음의 가치도 복음의 가치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복음입니다. 사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구원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16절에서 네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구원의 의미

1)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16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첫째, 구원이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내가 구원을 안받은 것 같지 않아요. 누군가 “당신,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라고 질문하면 “아멘! 할렐루야!”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왠지 속에서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구원에 대한 고민입니다. 왜 구원에 대한 이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나타난 대로 구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선행을 해서, 구제를 해서, 착한 일을 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헌금 열심히 해서, 얻는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인간 밖에서 와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이중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구원의 불안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구원을 마치 촛불로 비유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 비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태양으로 비유 할 수 있습니다. 태양 앞에서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꺼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촛불 앞에서 있으면 다릅니다. 언제 꺼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촛불은 모든 것을 다 비출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구원은 언제나 촛불같이 불안합니다. 선행을 통해서 얻은 구원은 불안합니다. 지금은 내가 착하고 선하지만 한 시간 후에는 내 자신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공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구원은 산소 호흡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구원은 불안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선언할 수 있다면 구원의 모든 불안에서 당장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요,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 구원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얻어집니다. 의인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잘난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환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도 없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값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값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은 다 싼 것입니다. 골동품이든 뭐든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은 다 싼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값으로 대치 안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대치 안됩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 사람들의 사랑도 전부 돈 주고 사려 합니다. 이걸 얼마짜리 얼마짜리로 계산합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동물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 하십시오. 이것이 16절에 나타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2) 오직 예수

16절에 나타난 구원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 복음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복음 14장 6절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길 중의 하나요 진리 중의 하나요 생명 중의 하나”라고 말입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는 겸손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겸손하고 성자입니다. 순수한 도를 깨우친 사람입니다. 석가모니도 “나는 니르반(열반)을 향하여 가르치는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르치는 것하고 길은 다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하고 진리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듣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사기꾼이든지 둘 중의 하나다.” “중간지대는 없다. 성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리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명이다”고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말을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독선적이다. 너무나 위선적이다. 그게 무슨 종교냐? 종교는 다 좋은 게 좋은거지, 왜 너만 진리라고 말하냐? 다른 사람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시험들어 공격을 합니다.

아주 고전적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남산에 올라가는 길이 어찌 한길이냐?”는 것입니다. 남산에 올라가는 길은 앞길도 있고 뒷길도 있고 셋길도 있는데 왜 한 길만이냐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왜 꼭 이 길로 가야만 남산 간다고 말하느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으로도 오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리도 오고 저리도 오고 여러 길로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고 우리 집 오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도버해협을 헤엄쳐 가는 사람을 중계한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일본

과 한국사이의 현해탄은 조오련이 해엄을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버해협이나 현해탄은 아니라도 한강 정도는 쉽게 건너가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태평양을 헤엄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갈 수도 없고 간 사람도 없고 갈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습니까? 죽으니까 그럴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현해탄이나 도버 해협이나 한강은 해엄을 잘 치느냐 못 치느냐가 문제 될 수 있지만 태평양 건너 가는데는 해엄을 잘 치냐 못 치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는 착하냐 덜 착하냐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더 착하다든지 난 좀 더 죄를 안지었다든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엄을 아무리 잘 치는 사람도 태평양은 헤엄쳐서 미국을 갈 수 없듯이 사람의 선행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을 가려면 비행기 타든지 배를 타든지 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남산으로 가는 길은 많습니다. 상대적 구원을 위해서 공헌하는 종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이를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한 길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비행기에 타서 뛰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행기는 그냥 타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움직여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나를 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실어가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옛날에 기독교 어느 교파에서 어느 신학자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쫓겨난 일이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예수만이 절대라고 말하느냐? 그런 독선이 어디 있느냐? 그런 위선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을 몹시 불편해 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하나가 되어서 불편한 적이 있습니까? 태양이 두개가 아니어서 불편하십니까? 태양은 하나입니다. 나를 나으신 부모님도 한분이십니다. 천국에 가는 길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분이십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 믿는 자의 구원

세 번째, 우리는 16절에서 구원에 관한 놀라운 진리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나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이 공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 앞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외워볼까요? “영접하는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구원은 자기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믿고 영접하고 믿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정말이 시간에 영접하고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나는 구원 받은 게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도 못 읽었다거나 교회를 자주 빠졌다고 구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똑같이 구원은 임한다는 뜻이요,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피부색깔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은 똑같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원시인에게도 현대인에게도 시대를 초월한 누구에게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은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은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이 구원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라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온 인류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일 때 그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이 어느 누구만을 위한 구원이라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이요 여러분을 위한 구원이요 나를 위한 구원일 때 참구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 제한 없이, 조건 없이, 구별 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구원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한 네 가지 비밀들을 오늘 16절 한절에서 보았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며 은혜요 축복입니다. 두 번째,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상대적 구원은 세상에 많이 있지만 절대적 구원은, 유일한 구원은 하나 뿐인 것입니다. 태평양은 헤엄쳐서 못갑니다. 비행기를 타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도꼭지까지 물이 꼭 차 있지만 내가 물을 만들 수는 없습니

다. 내가 물을 거기까지 가져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물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을 내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수도꼭지를 틀어야 합니다. 구원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였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그 사실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면 구원이 즉각 내게 임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구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대상의 구분없이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 -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이제 이 구원,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에 대해서 17절에서 좀 더 깊이 설명을 합니다. 17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 이길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가? 그 복음이 어떻게 값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라는 말보다는 사람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까지 오게 하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이 의롭게 하는 능력,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어 전치사 두 가지를 씁니다. from과 to 입니다. 이 from은 믿음의 출처를 말하고 to는 믿음의 방향을 말합니다. 복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도바울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유명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가짜종교를 때려 부순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전통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이 말씀 한마디가 해머가 되어서 산산조각 되게 했습니다. 무섭고 어두운 중세가 이 말씀으로 탈출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요 이것이 참 신앙이요 이것에 참구원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의 현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 기독교진리를 핵심적인 진리를 다 분산시켜 놔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건강해진다, 복 받는다 등입니다. 물론 그것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만사형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심 진리가 아닙니다. 중심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의 의를 이루는 믿음이 기독교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요즘 기독교는 하면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전부 믿음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신력에 집중을 합니다. 자기 기도에 자기가 도취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오래 삽니까? 아닙니다. 일찍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가난해 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서른세살에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참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런 현상학적인, 기복신앙적인 이런 것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두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땅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요 감정으로 받는 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감정으로 성령 받는 것 아니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영생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크리스천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믿음, 그것이 곧 신앙입니다.

오늘 교회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핵심적이지 않은 것을 핵심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사십시오. 참된 믿음으로 의인은 존재하는 것이며 위대한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축복을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리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